



#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김수린·이승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정섭 선임연구위원 061-820-2252 jskkjs@krei.re.kr  
내 용 문 의 김수린 연구위원 061-820-2036 slkim@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35호

##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6. 4.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김수린·이승준

### 요약

#### 농어촌 주민은 도시민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나, 도농 간 생활 여건 격차는 지속

-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거주 지역 생활만족도는 도시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삶의 질 4대 부문(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의 도농 간 만족도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은 보건·복지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와 중요도를 종합한 IPA 분석에서도 해당 부문만이 '최우선 개선 영역'에 포함되었음. 도시민의 경우 보건·복지가 '현상 유지 영역'이었다는 점에서 대조적임.

####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는 연령별 차이가 뚜렷하며, 40대 이하의 체감 만족도가 가장 낮아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는 연령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며,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특히 보육·분만·육아 인프라, 문화·여가 프로그램 다양성, 일자리 여건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또한,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의 만족도가 낮아, 성별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음. 이는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과 정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요와 선호를 반영한 생활 여건 개선이 요구됨.
- 50·60대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특히, 정주 여건 부문에서 여유롭고 조용한 주변 환경,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농어촌 특성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남. 귀농·귀촌이 장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환경적 강점을 유지·강화하는 정책이 효과적인 유인기제가 될 수 있음.
- 70대 이상 고령층은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아, 의료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확인됨. 또한, 문화·여가 부문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저조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 등 혁신적 노력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관계인구 등 농정 현안에 대한 수용성 제고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응 필요

-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및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이해하고 있는 주민은 사업 필요성과 수용 의향에 높은 공감도를 보였음. 이는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 대상의 충분한 정보 제공과 홍보 강화가 중요함을 시사함. 한편 재생에너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소득은 소득 안정 측면에서 기대가 높은 반면,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 체계적인 자원 설계와 단계적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함.
- 농촌 관계 활동에 대한 도시민의 잠재 수요가 관찰됨에 따라 향후 관계인구 확대 가능성을 확인함. 다만 도시민은 여가·휴식 중심의 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농어촌 주민은 지역 활력 제고를 기대하는 등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음. 이에 관광·지역 일자리 연계형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봉사형 '농촌 재능나눔' 등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확대가 필요함. 또한 도시민은 시간·비용 부담 완화를, 농어촌 주민은 지역 매력도와 방문 편의 개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교통 연계와 공유형 체류 인프라 조성 등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노력이 요구됨.

## 01



## 조사 개요

## 1.1. 조사 목적과 의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과 정주민족도 추이를 도시민과 비교·분석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를 수행

-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전국 3,500명(농어촌 주민 2,500명, 도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실태와 주민의 정주민족도 조사’(이하 정주민족도 조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여건에 대한 인식 및 만족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특히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범부처 기본계획과 연계해 그 성과를 검증·평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주요 영역별로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정주민족도 수준을 파악함. 2025년 조사에는 새롭게 시행된 제5차 기본계획(2025~2029년)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편된 지표가 사용되었음.
- 주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삶의 질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또한 농어촌 정책 현안에 대한 주민 인식을 조사하여 정책 대응의 시의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표 1 조사 대상 및 설계

구분	농어촌 주민	도시민
조사 대상	전국 농어촌지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전국 도시지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2,500명(읍 1,231명, 면 1,269명)	1,00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방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방문조사
표본 추출 방법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	
표본오차(95% 신뢰수준)	±1.66%p	
조사 수집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기간	2025. 10. 1. ~ 2025. 11. 7.	

주: 조사 수행은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6), 2025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를 재구성.

## 1.2. 조사 설계

### 조사 문항은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은 물론 제5차 기본계획과 연동되도록 구성

- 2025년 조사 문항은 크게 3개 영역(1.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2. 삶의 질 4대 부문별 인식, 3. 농어촌 관련 사회·정책적 이슈)으로 구성됨.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의 질(5항목), 거주지에 대한 전반적 인식(4항목), 소속감 및 공동체에 대한 인식(7항목)을 포함함. 각 항목은 만족도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일 선택 문항으로 조사됨.
- 삶의 질 4대 부문의 주요 영역인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별 세부적인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 수준을 측정하며, 응답자 특성(세대, 성별, 거주지(읍·면))에 따른 차이를 함께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함.
- 농어촌 관련 사회·정책적 이슈는 시의성 높은 농어촌 현안에 대한 주민의 정책 인지도 및 인식(필요성·우려 등)을 측정하며, 단일 선택 문항과 순위형 문항을 혼합하여 구성함.

표 2 2025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질	삶의 전반적 만족도, 나의 삶의 가치 인식, 주관적 신체 건강, 주관적 정신건강, 우울 수준 등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거주 지역 생활만족도,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등
	소속감 및 공동체에 대한 인식	지역 소속감, 거주 지역 정책 신뢰도, 거주 지역 주민 신뢰도, 이웃과의 관계, 이웃 간 도움,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타 지역 주민에 대한 태도 등
삶의 질 주요 부문별 인식	지역 여건에 대한 4대 부문별 만족도와 중요도	4대 부문(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별 세부 만족도 및 정책 중요도
농어촌 관련 사회·정책적 이슈	(농정 현안) 농어촌 재생에너지,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관계활동 및 관계인구에 대한 인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9), 2025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를 재구성.

### 본고는 2025년 정주만족도 조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를 논의<sup>1)</sup>

- 2장에서는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 3장에서는 삶의 질 정책 4대 부문별 만족도와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 농어촌 주민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함. 끝으로 4장에서는 농어촌 관련 사회·정책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 본고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함.

1) 동 조사는 2018년 이후 연도 간 비교 가능성 및 조사 결과 해석의 일관성 확보, 응답자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11점 척도(0~10점)를 적용하여 정주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음. 이에 본고는 분석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 02



## 삶의 만족도와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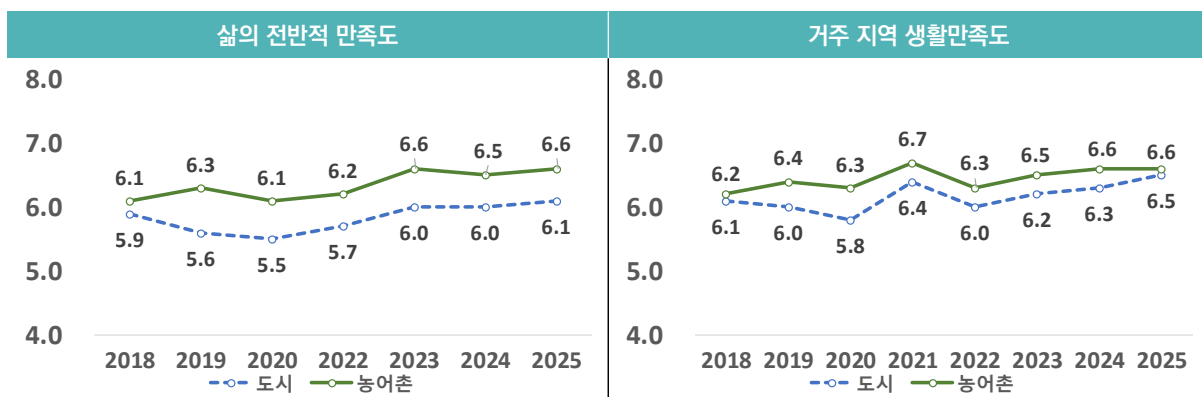
### 2.1.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거주 지역 생활만족도

####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거주 지역 생활만족도는 도시민보다 더 높은 수준

- 2018년 이후 ‘삶의 전반적 ‘만족감’과 ‘거주 지역 생활만족도’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다만 ‘거주 지역 생활만족도’ 격차는 최근 다소 감소함.
-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모두 2018년 이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증가 추세로, 농어촌 주민은 2018년 6.1점에서 2025년 6.6점으로, 도시민은 같은 기간 5.9점에서 6.1점으로 각각 상승함. 특히, 농어촌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도시민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간의 삶의 만족도 격차는 2019년 이후 최근까지 약 0.5~0.7점 내외로 확인됨.
-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만족감 역시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2022년에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모두 만족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 0.3점 내외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2025년 조사 결과, 거주 지역 생활만족도 격차는 다소 축소(0.3점 → 0.1점)되었는데, 이는 도시민의 만족도가 상승(6.3점 → 6.5점)한 데에 기인함.

그림 1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및 거주 지역 생활만족도 변화 추이: 도농 비교

단위: 점(0~10점)



주 1) t-test 결과 삶의 전반적 만족도의 도농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p < .001$ ).

2) 삶의 전반적 만족도 항목 조사는 2021년 일시 중단 후, 2022년부터 재개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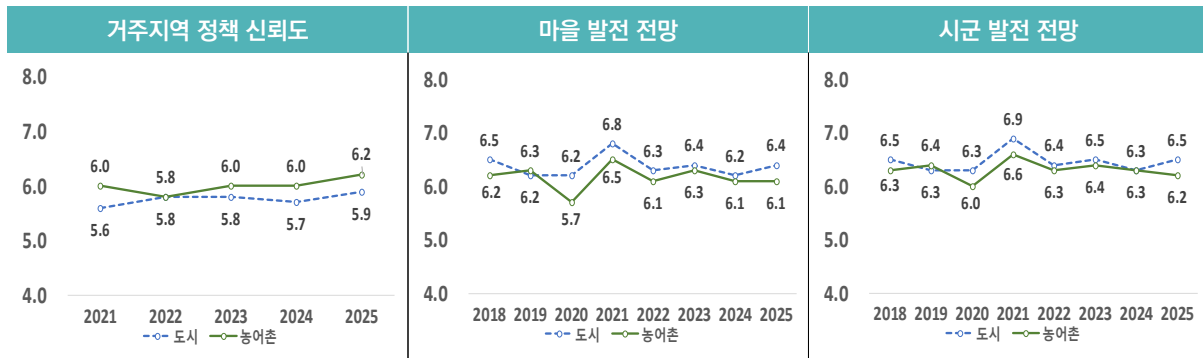
## 2.2. 지역 정책 신뢰도와 발전 전망

### 농어촌 주민은 도시민보다 지역 정책을 더 신뢰하지만,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 지역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정책 신뢰도는 최근 5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향후 발전 전망은 최저 수준을 기록함.
  - 2021년 ‘거주지역 정책 신뢰도’ 항목이 처음 조사된 이후, 농어촌 주민(’21년 6.0점 → ’25년 6.2점)과 도시민(’21년 5.6점 → ’25년 5.9점) 각각 신뢰도가 상승하며 최고 수준을 기록함.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농어촌 주민은 도시민보다 일관되게 높은 신뢰도를 나타냄에 따라, 지역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현재 거주 중인 마을 및 시군 발전 전망 추이를 살펴보면, 도시민과 달리 농어촌 주민은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다소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해당 격차는 최근까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 다시 확대되었음(각각 0.3점). 이는 지역 발전에 대한 도시민의 긍정적 응답이 전년 대비 개선된 반면(마을 발전 전망: 6.2점 → 6.4점, 시군 발전 전망: 6.3점 → 6.5점), 농어촌 주민은 정체 및 하락했기 때문임(마을 발전 전망: 6.1점 → 6.1점, 시군 발전 전망: 6.3점 → 6.2점).

그림 2 거주지역 정책 신뢰도 및 발전 전망 추이: 도농 비교

단위: 점(0~10점)



주 1) t-test 결과, 거주지역 정책 신뢰도,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간 도농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p < .001$ ).

주 2) ‘거주지역 정책 신뢰도’ 문항은 2021년 신설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를 재구성.

## 2.3. 사회적 자본 및 타 지역 주민과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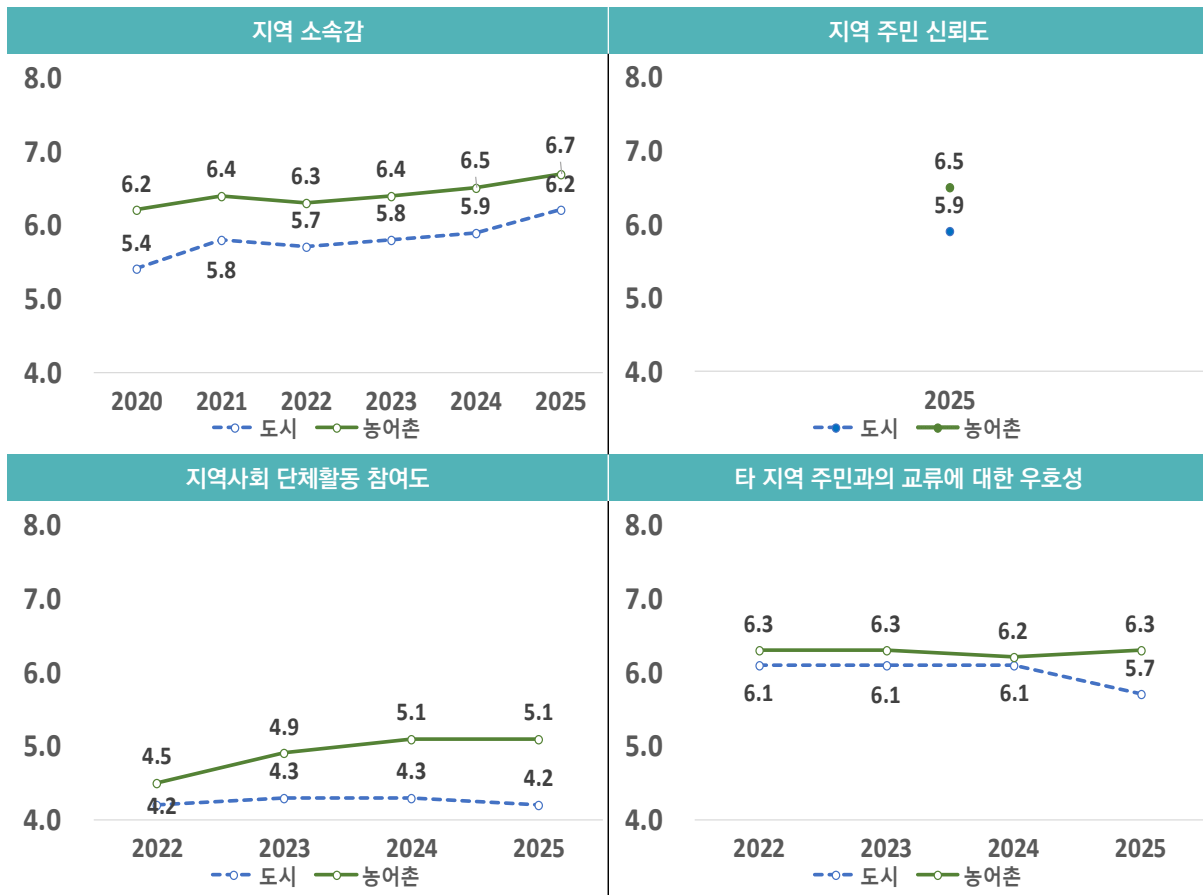
### 농어촌 주민은 지역 소속감이 높고, 주민 간 관계 및 타 지역 주민에 대한 태도도 더 긍정적

- 농어촌 주민은 도시민 대비 주민 간 신뢰가 높고, 타 지역 주민과의 교류에 대해서도 더 우호적임.
  -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각각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지역 소속감을 나타냄(농어촌 6.3점, 도시 5.8점). 또한 농어촌 주민은 해당 문항에서 도시민보다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임.

- 농어촌 주민은 거주 지역 사람들에 대한 신뢰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6.5점을 기록함. 이는 도시민(5.9점)보다 높은 수준임. 한편, 지역의 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어촌 주민의 비율은 '22년 4.5점에서 '25년 5.1점으로 상승하였으나, 동기간 도시민은 4.2점으로 정체됨. 이에 도농 간 격차는 다소 확대되었음('22년 0.3점 → '25년 0.9점).
- 타 지역 주민들의 이주나 왕래에 대해 우호적인지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보다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유지함. 다만, 2025년 조사에서는 도시민의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하며(6.1점 → 5.7점), 농어촌 주민과의 격차가 확대되었음(0.1점 → 0.6점).

그림 3 사회적 자본 및 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추이: 도농 비교

단위: 점(0~10점)



주 1) t-test 결과, 모든 문항에서 도농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p < .001$ ).

2) '지역 소속감' 문항은 2020년,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타 지역 주민 교류에 대한 우호성' 문항은 2022년, '지역 주민 신뢰도' 문항은 2025년에 각각 신설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민족도 조사를 재구성.

## 2.4. 시사점

-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거주 지역 생활만족도가 도시민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2025년 조사에서도 유지되었음. 다만, 거주 지역 생활만족도의 경우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농어촌 주민과 달리 도시민의 수준이 상승하면서 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민은 거주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도시민보다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의 성과가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한편, 농어촌 주민의 지역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이는 향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혁신적인 정책 발굴·추진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거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뢰 수준은 도시민보다 농어촌 주민들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공동체 전통이 유지된 농어촌의 높은 사회적 자본을 보여주는 것임. 한편 농어촌 주민은 타 지역 주민에 대해 도시민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남. 최근 농어촌 소멸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관계 인구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성은 농어촌의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이와 비교해, 도시민의 외지인과의 교류에 대한 우호성은 조사 시작 이래 가장 크게 하락하였음.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강화될 경우 농어촌 방문 및 주민과의 교류 등 도농 간 교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반값 여행 등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도농 간 접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03



## 삶의 질 4대 부문별 지역 여건에 대한 인식

### 3.1.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sup>2)</sup>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모두 삶의 질 4대 부문(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전년 대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 격차는 여전히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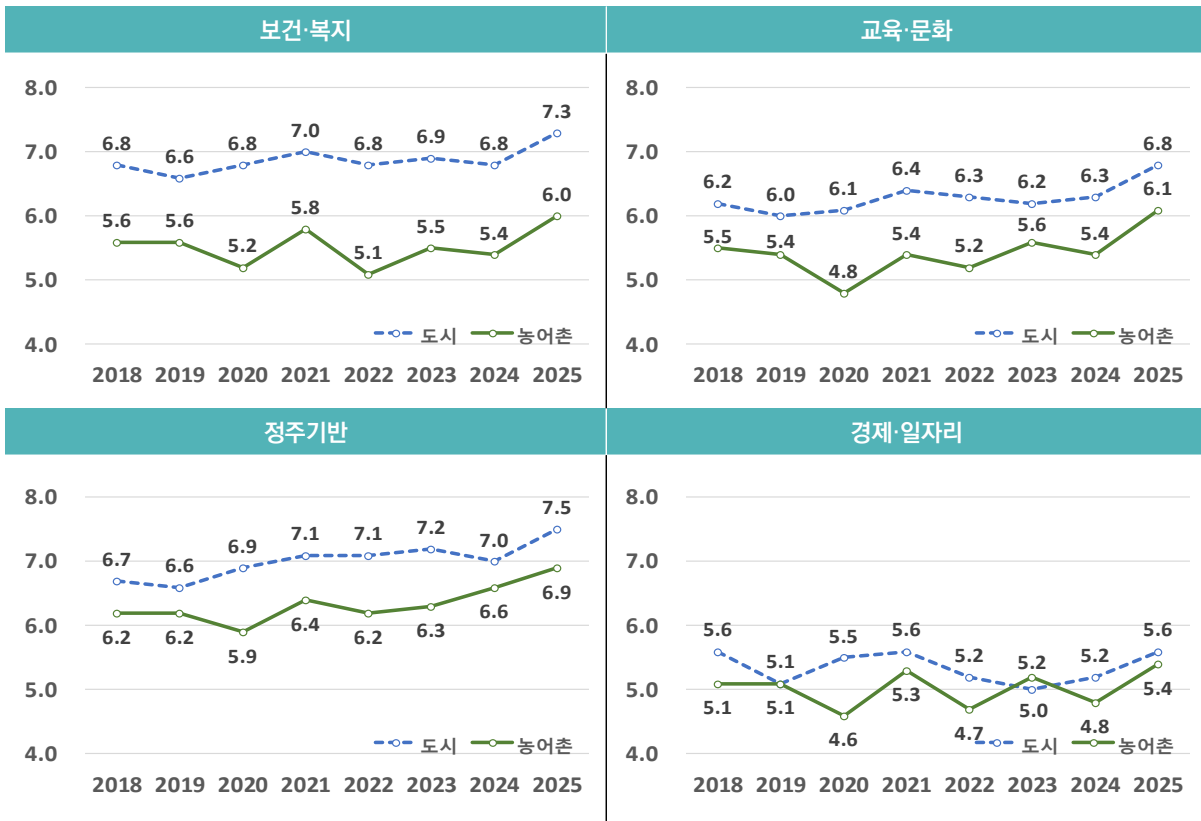
- 삶의 질 4대 부문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도시민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부문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남.
  - (보건·복지)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전년보다 0.6점 상승한 6.0점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 주민 간 만족도 격차(1.3점)는 4대 부문 중 가장 크게 나타나 도시와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음.
  - (교육·문화)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1점을 기록함. 이는 삶의 질 4대 부문 가운데 저점 대비 가장 큰 상승폭('20년 4.8점 → '25년 6.1점)을 보인 결과임.<sup>3)</sup> 다만 도시와의 격차(0.7점)는 여전히 유지됨.
  - (정주기반) 삶의 질 4대 부문 중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6.9점을 기록함. 해당 부문은 2022년 이후 매년 꾸준한 상승세(6.2점 → 6.9점)를 보임. 이러한 정주기반 만족도 추세는 농어촌의 인프라 개선 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 (경제·일자리) 전년 대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모두 다른 부문 대비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함. 다만 도농 격차는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상승폭(0.6점)이 도시민(0.4점)을 상회하면서 0.2점 수준으로 완화되었음.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수준이 지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2)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부문(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구분을 유지함.

3) 2020년은 팬데믹 여파로 만족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시기임. 따라서 만족도 지표 상승은 일상 회복에 따른 반등 효과와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 추이: 도농 비교

단위: 점(0~10점)



주: t-test 결과, 모든 문항에서 도농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를 재구성.

### 3.2. 2025년 삶의 질 4대 부문 IPA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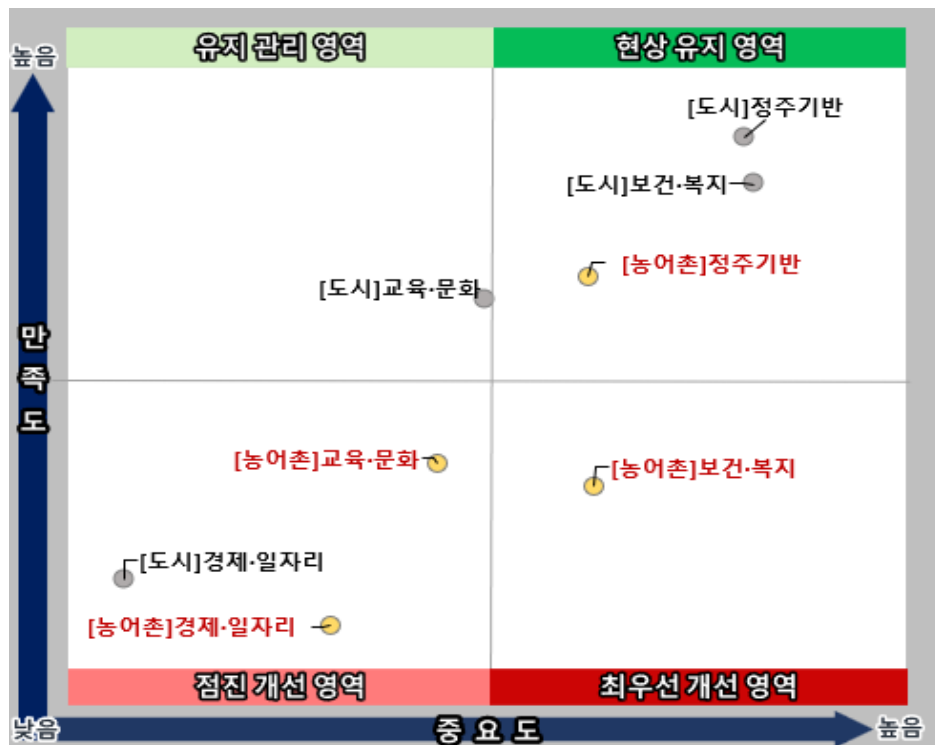
#### 농어촌 주민의 체감 만족도와 중요도를 종합한 결과, 삶의 질 4대 부문 중 3개 부문에서 개선 필요

- 삶의 질 4대 부문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토대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sup>4)</sup> 분석을 수행한 결과,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영역은 보건·복지 부문인 것으로 드러남.
  -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 체감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최우선 개선 영역’에는 농어촌의 보건·복지만이 포함되었음. 즉, 농어촌 주민은 보건·복지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7.0점)에 비해 체감하는 만족도(6.0점)는 낮은 것으로 드러남. 이는 보건·복지가 ‘현상 유지 영역’(중요도 7.1점, 만족도 7.3점)으로 분류된 도시민의 인식과 대조적임. 이러한 차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보건·복지 여건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음.

4) IPA 분석은 특정 요소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각각 x와 y축으로 하는 2차원상의 평면 위에 좌표로 표현하는 분석 방법임.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정주민이 응답한 4대 영역별 중요도 및 만족도를 4대 영역 전체 중요도 및 만족도 평균값을 기준으로 나눈 사분면(현상 유지 영역, 유지 관리 영역, 점진 개선 영역, 최우선 개선 영역)에 표시함.

- 경제·일자리는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모두에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점진 개선 영역'에 해당하였음. 또한 농어촌의 교육·문화 부문 역시 도시와 달리 동일 영역으로 분류된 반면, 도시에서는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유지관리형'으로 나타남.
- 정주민족도의 경우 농어촌과 도시 모두에서 주민이 인식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현상 유지 영역'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5 삶의 질 4대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IPA 분석(2025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29), 2025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민족도 조사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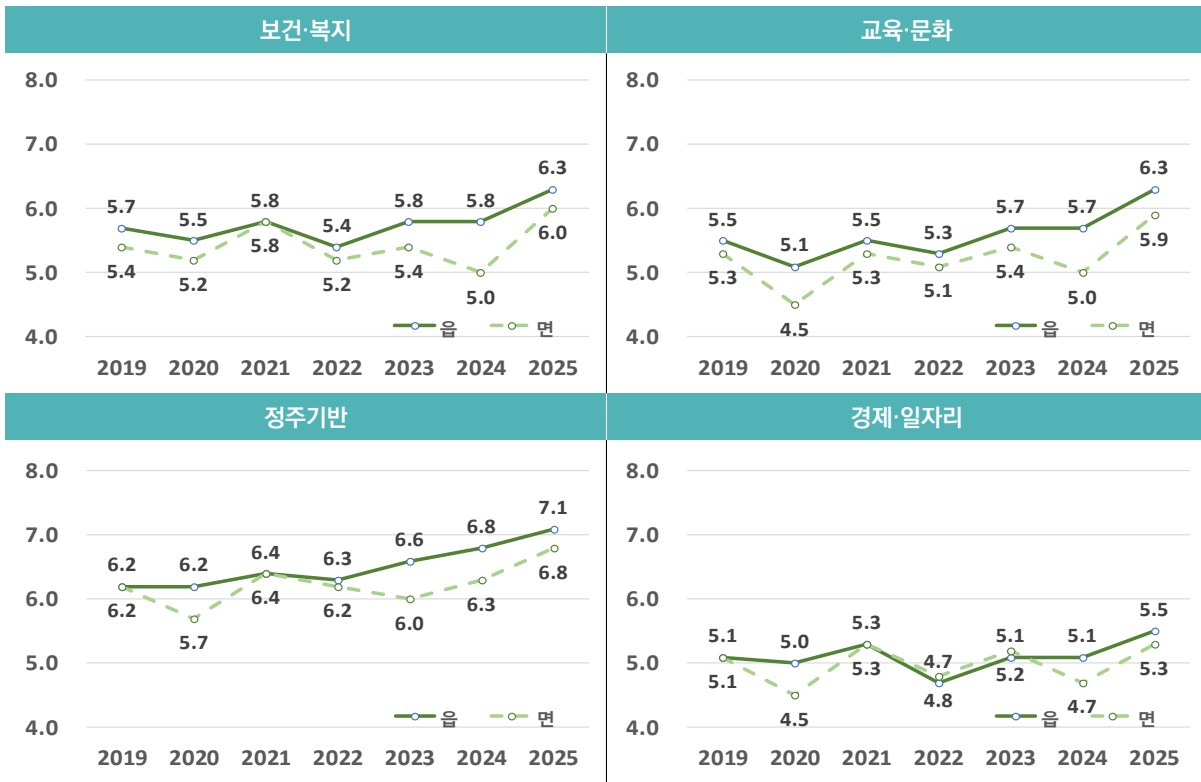
### 3.3.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 읍면 비교

#### 읍부와 면부 간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 격차는 소폭 완화

- 면부 주민은 읍부 주민보다 4대 부문 전반에 대한 지역 여건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만족도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격차는 다소 축소되었음.
- 2025년 삶의 질 4대 부문 평균 만족도는 읍부 6.3점, 면부 6.0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면부 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다만 격차는 202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구체적으로 전년과 비교해 보건·복지(0.8점 → 0.3점), 교육·문화(0.7점 → 0.4점), 정주민족(0.5점 → 0.3점), 경제·일자리(0.4점 → 0.2점) 모두에서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음. 이는 읍부 주민의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면부 주민의 만족도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데에 기인함.

그림 6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 추이: 읍면 비교

단위: 점(0~10점)



주: t-test 결과, 경제·일 자리를 제외한 문항에서 읍면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를 재구성.

### 3.4. 농어촌 주민 특성별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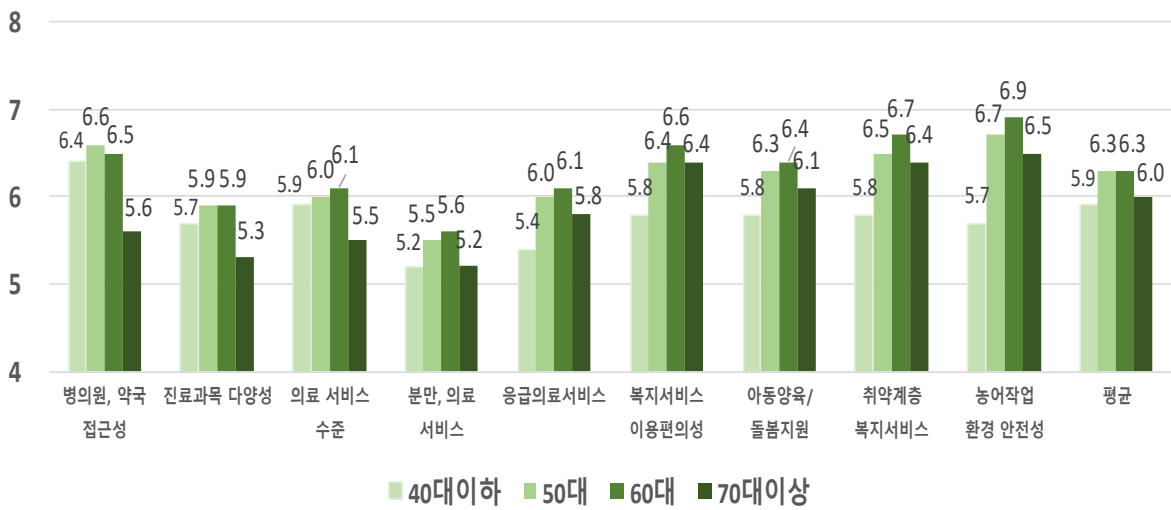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젊은 40대 이하 연령층은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50·60대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연령대별 격차가 뚜렷

- 40대 이하 연령층은 보건·복지 부문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5.9점). 70대 이상 연령층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6.0점), 만족도가 낮은 세부 항목에는 차이가 확인됨.
  - 농어촌 보건·복지 부문은 IPA 분석에서 주민들이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최우선 개선 영역에 포함됨. 농어촌 주민 중에서도 특히 40대 이하와 70대 이상 연령층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만큼, 해당 세대의 보건·복지 만족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자녀 양육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분만, 보육, 육아 관련 항목에서 인프라 공백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분만의료 서비스(5.2점),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5.4점), 아동 양육 및 돌봄 지원(5.8점),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5.8점) 항목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임. 저출생 문제가 국가 핵심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출산·육아 환경이 여전히 취약함을 알 수 있음.

- 70대 이상 연령층은 의료서비스 접근 및 이용 여건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게 나타남. 주로 병원·약국 접근성(5.6점), 진료과목 다양성(5.3점), 의료서비스 수준(5.5점)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고연령층에서 오히려 더 낮은 만족도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서비스 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됨.

그림 7 보건·복지 부문 세부 만족도: 연령대별 비교<sup>5)</sup>

단위: 점(0~10점)



주: ANOVA 검정 결과, 모든 문항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42), 2025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를 재구성.

• 교육·문화 부문에서도 연령대별 격차가 나타났으며, 특히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평생교육 및 문화·여가 관련 만족도가 가장 저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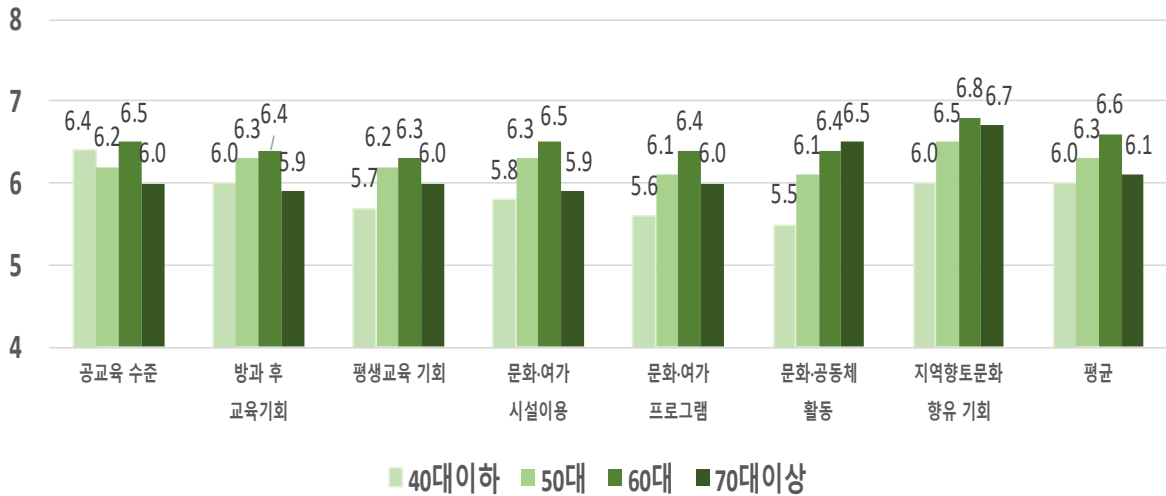
- 자녀 양육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방과 후 교육기회'(6.0점)가 '공교육'(6.4점) 만족도 보다 낮았음. 이는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돌봄 서비스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함. 또한 '평생교육 기회(5.7점)'에서도 낮은 만족도를 보여, 역량 강화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관련 여건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만족도는 60대(각 6.5점, 6.4점)에서 가장 높고, 40대 이하(각 5.8점, 5.6점)와 70대 이상(각 5.9점, 6.0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콘텐츠 다양성과 접근성 등 이용 여건의 차이와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5) 보건·복지 만족도 ANOVA 사후검정 결과(A: 40대 이하, B: 50대, C: 60대, D: 70대 이상; p<.05 기준): 병원, 약국 접근성 및 진료과목 다양성(D < A, B, C), 의료 서비스 수준(D < B, C), 분만의료 서비스(A < C), 응급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이용편의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A < B, C, D) 아동양육 및 돌봄지원(A < B, C).

그림 8 교육·문화 부문 세부 만족도: 연령대별 비교<sup>6)</sup>

단위: 점(0~10점)



주: ANOVA 검정 결과, 모든 문항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42), 2025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를 재구성.

• 정주여건은 전 연령층에서 다른 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여유롭고 조용한 주변환경 등 농어촌 특성 관련 항목에서 40대 이하와 타 연령층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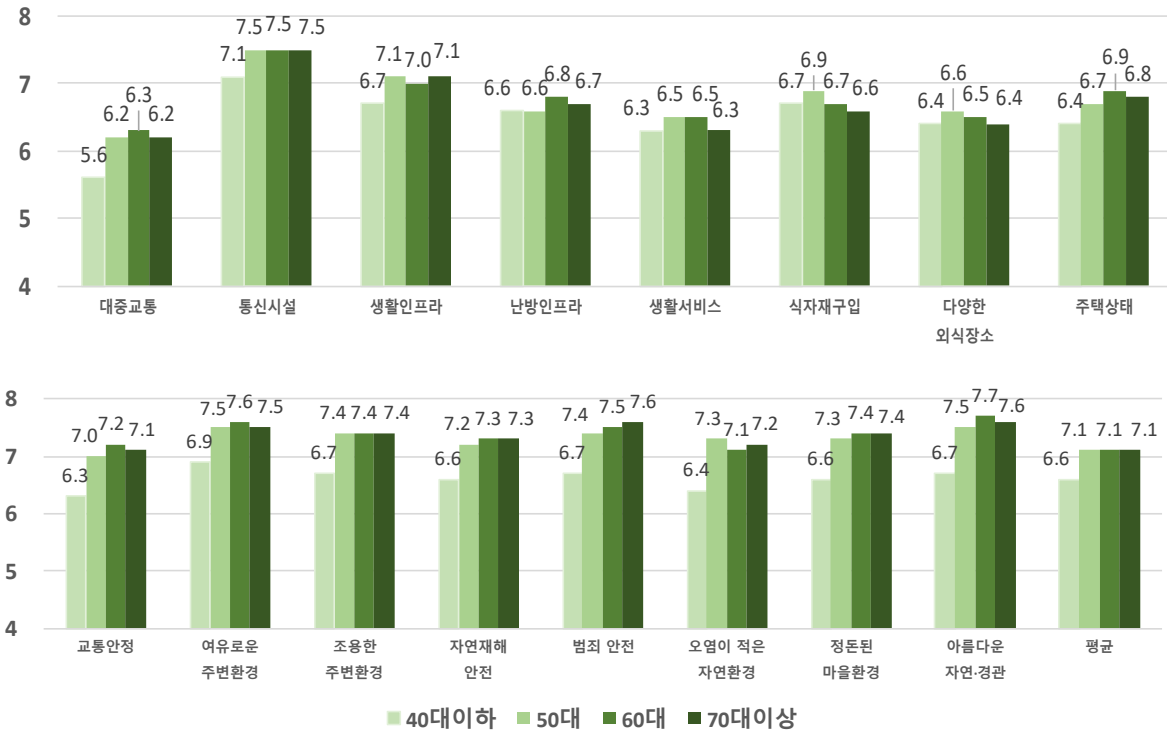
- 정주여건 부문 평균 만족도는 40대 이하 연령층이 6.6점, 그 이상 연령층은 각 7.1점으로, 상대적으로 40대 이하의 만족도가 저조하였음. 특히, 정주여건 세부 항목 가운데 ‘대중교통 만족도’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개선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40대 이하에서 현저하였는데(5.6점), 고연령층과 비교해 이동 빈도가 높은 특성상 체감하는 불편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 정주여건 세부 항목 중 ‘농어촌 특성’과 관련된 항목(‘여유로운 주변환경’, ‘조용한 주변환경’, ‘오염이 적은 자연환경’,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서 50대 이상 연령층은 모두 7.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냄. 이는 전체 4대 부문 세부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임. 주로 장년층 이상에서 귀농·귀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농어촌의 특성은 향후 이주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6) 교육·문화 만족도 ANOVA 사후검정 결과(A: 40대 이하, B: 50대, C: 60대, D: 70대 이상; p<.05 기준) : 공교육 수준(A, D < C), 방과 후 교육기회(A < C; D < B, C), 평생교육 기회(A < B, C), 문화·여가 시설이용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A < B, C; D < C), 문화·공동체 활동(A < B, C, D; D < B), 지역향토문화 향유 기회(A < B, C, D).

그림 9 정주여건 부문 세부 만족도: 연령대별 비교<sup>7)</sup>

단위: 점(0~10점)



주: ANOVA 검정 결과, '난방 인프라', '생활 서비스', '식자재 구입', '다양한 외식장소', '범죄 안전', '적은 환경오염'을 제외한 문항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48), 2025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를 재구성.

• 모든 연령층에서 4대 부문 중 '경제·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드러난 가운데, 특히 40대 이하 여성의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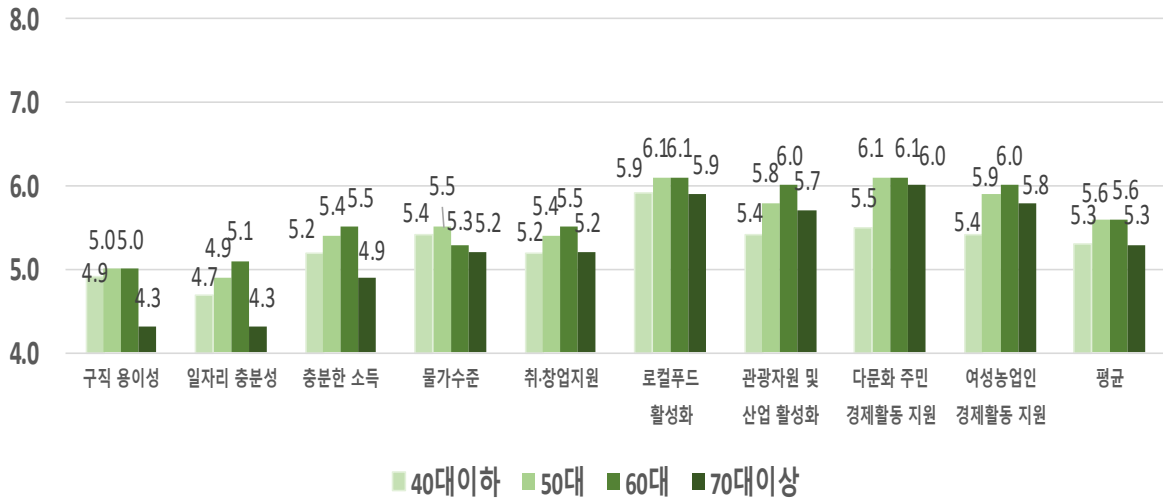
- 경제·일자리 부문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농어촌 주민 생활 여건 전반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나타남. 그중에서도 개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쉬운지를 묻는 '구직 용이성'과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한지를 묻는 '일자리 충분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확보하는 일이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줌.

- 특히, 40대 이하 청년층과 7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경제·일자리에 대한 만족도(5.3점)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4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성별 간 만족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5.1점), 구직 용이성(4.6점), 일자리 충분성(4.4점), 소득 수준(4.9점) 등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일자리 부문 전반에서 남성과의 격차가 존재하였음(약 0.6점 수준). 이는 농어촌 일자리 환경이 40대 이하 여성의 구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함.

7) 정주여건 만족도 ANOVA 사후검정 결과(A: 40대 이하, B: 50대, C: 60대, D: 70대 이상; p<.05 기준) : 대중교통, 통신시설, 생활인프라, 교통안전, 여유로운 주변환경, 조용한 주변환경, 자연재해 안전, 오염이 적은 자연환경, 정돈된 마을환경, 아름다운 자연·경관(A < B, C, D), 주택상태(A < C).

그림 10 경제·일자리 부문 세부 만족도: 연령대별 비교<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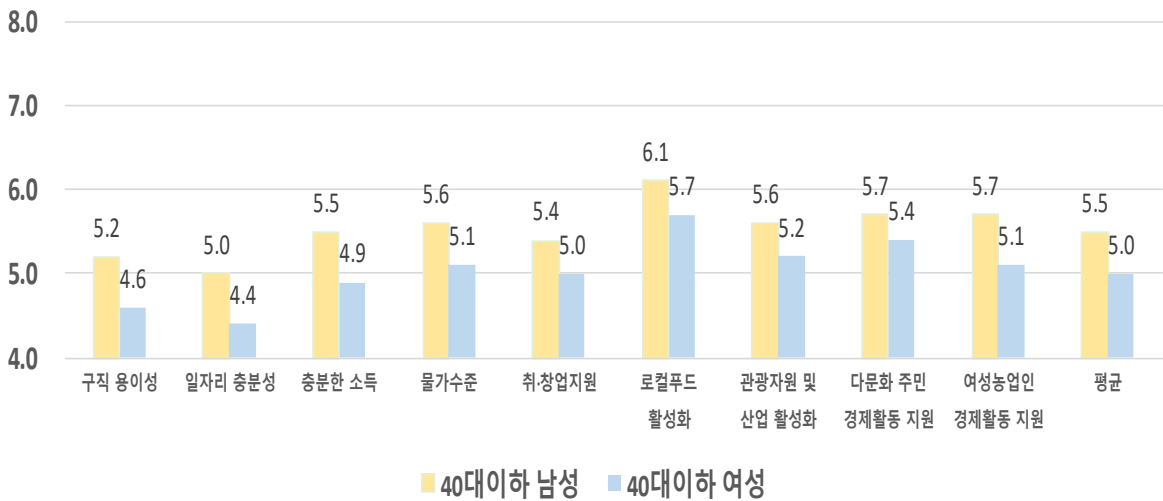
단위: 점(0~10점)



주: ANOVA 검정 결과, '취·창업지원', '로컬푸드 판매'를 제외한 문항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51), 2025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를 재구성.

그림 11 40대 경제·일자리 부문 세부 만족도: 성별 간 비교

단위: 점(0~10점)



주 1) 타 연령대와 달리 40대 이하에 대해서만 성별 간 비교를 추가함. 이는 해당 세대의 경제·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성별 간 만족도 격차도 현저하게 관찰됨에 따라 농촌 내 고용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기술하기 위함임.  
 2) t-test 결과, 취·창업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을 제외한 문항에서 성별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56), 2025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를 재구성.

8) 교육·일자리 만족도 ANOVA 사후검정 결과(A: 40대 이하, B: 50대, C: 60대, D: 70대 이상; p<.05 기준): 구직 용이성(D < A, B, C), 일자리 충분성 (A < C; D < A, B, C), 충분한 소득(A < C; D < B, C),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A < B, C, D).

### 3.5. 시사점

- 삶의 질 4대 부문(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전반에서 농어촌 주민 체감 만족도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도시민과의 격차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특히, 보건·복지 부문에서 도농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유지되었으며, IPA 분석에서도 '최우선 개선 과제'로 도출됨. 이는 농어촌의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함. 농어촌 주민 전 연령층에서 의료서비스 항목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농촌 왕진버스 확대, 비대면 의료서비스 도입, 원격 협진 활성화, 방문진료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분만의료서비스의 경우 공공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확충, 광역 단위 분만 응급체계 구축, 분만 취약지 이송 지원 확대 등 구조적인 대응이 요구됨.
- 삶의 질 4대 부문에 대한 농어촌 지역 내 읍부와 면부 간 만족도 차이는 다소 축소되었음. 면부 주민의 만족도는 여전히 읍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4년 확대되었던 격차는 2025년에 면부 주민의 만족도 상승에 따라 4대 부문에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완화됨.
- 삶의 질 4대 부문 만족도는 연령 집단별 차이가 관찰되었음. 특히, 40대 이하 연령층은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구체적으로 분만, 보육, 돌봄 등 자녀 양육 관련 항목에서 낮은 만족도가 확인됨에 따라, 농어촌에서의 출산·양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우려됨. 더불어 문화·여가활동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교육 여건에 대해서도 낮은 만족도를 보임. 일자리 부문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의 만족도가 낮아, 지역 내 적합한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현재 농어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확대·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아직 체감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동시에, 기존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함.
- 한편 50·6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농어촌 4대 부문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특히, 정주여건 부문의 세부 항목 가운데 여유로운 환경, 아름다운 자연 경관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장년층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농어촌의 환경적 특성이 지역의 강점으로 유지·강화 될 수 있도록 보존과 개선 노력이 필요함. 이는 잠재적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70대 이상 고령층은 의료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접근성 및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음. 이는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또한 고령층의 문화·여가 부문에 대한 낮은 만족도 역시 이들의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접근성이 높은 마을 내 경로당을 거점으로 ICT 기반 실시간 양방향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마트 경로당 등의 사업의 활용·확대를 검토할 수 있음.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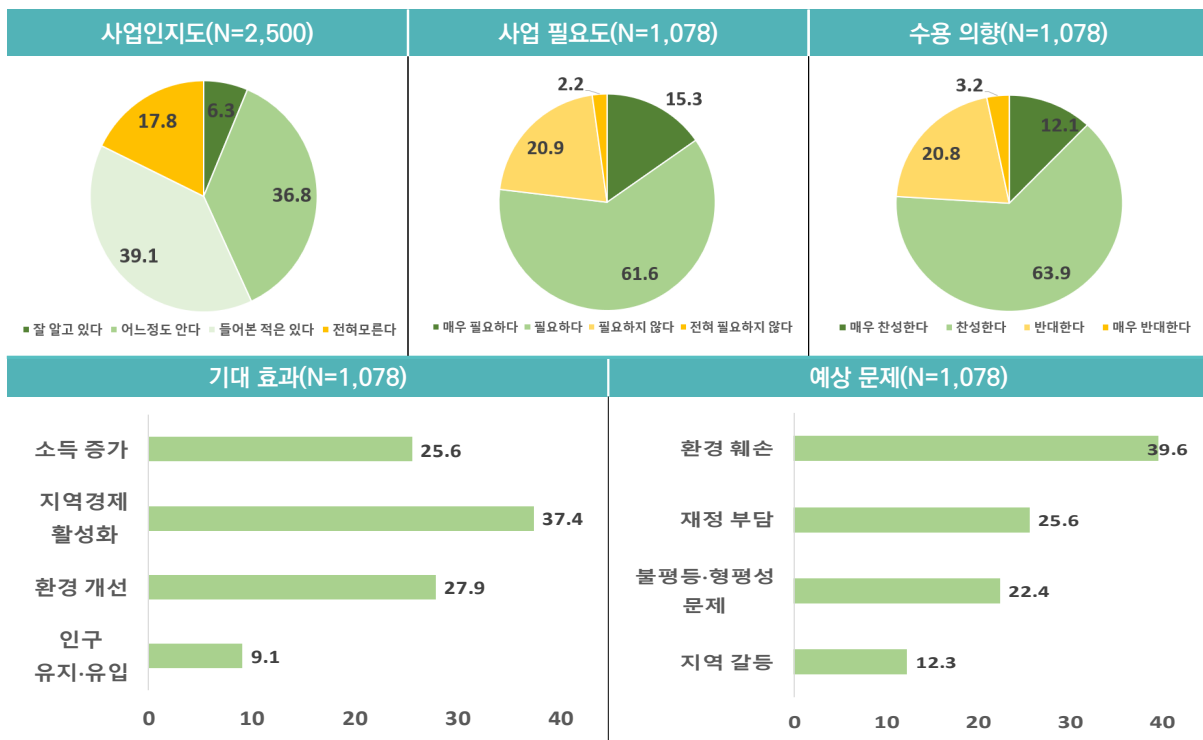
## 농어촌 관련 사회·정책적 이슈에 대한 인식

### 4.1. 농촌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농어촌 주민 10명 중 약 8명은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기대

그림 12 농촌 재생에너지에 관한 인식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2025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를 재구성.

-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경우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남.
  - 농어촌 주민 2,500명을 대상으로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2%가 해당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 또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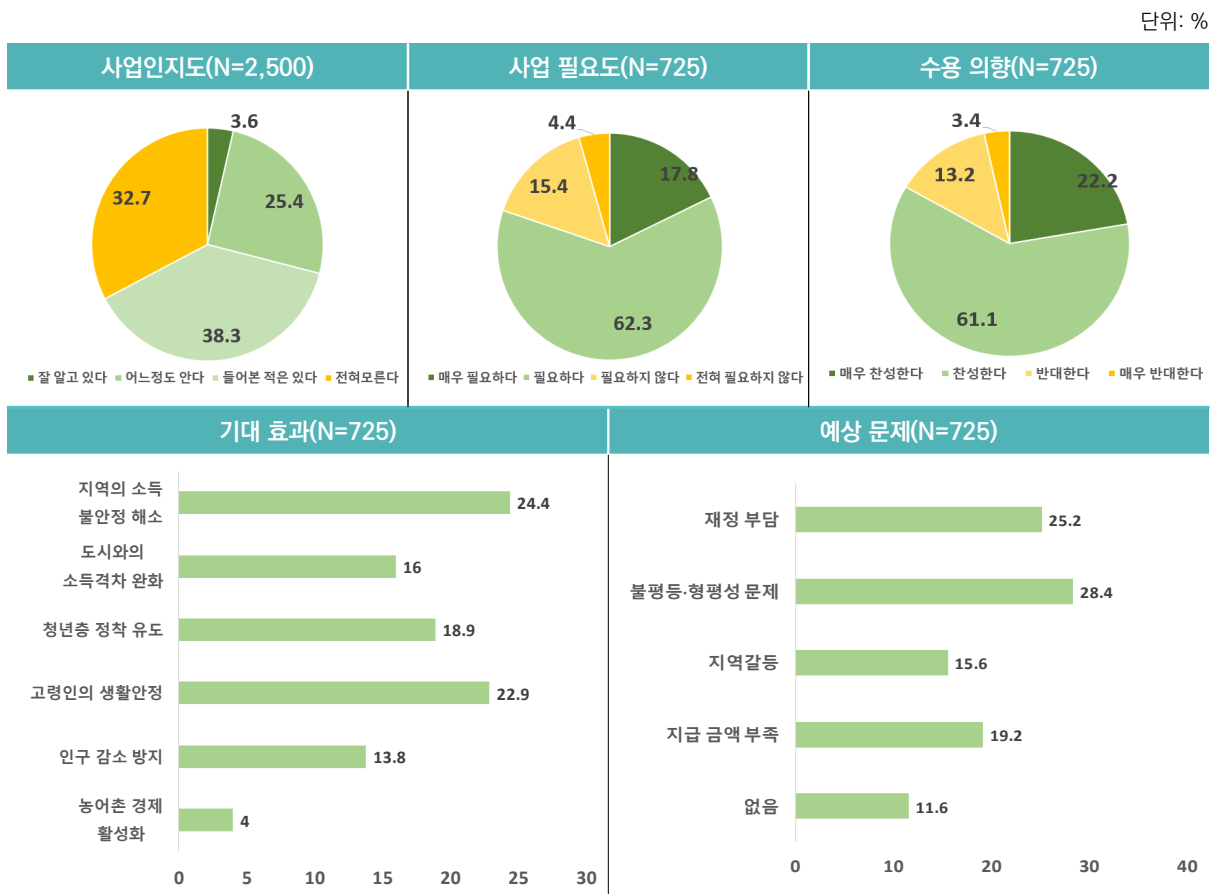
비율은 43.1%였으며, 이들은 사업 필요성에 대해 76.9%가 동의하였고 수용 의향 역시 76.0%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해당 집단은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가 높으나, 환경 훼손 및 재정 문제를 우려함.
  - ‘어느 정도 안다’ 또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을 대상으로 기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37.4%)와 환경 개선(27.9%)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반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 훼손(39.6%)과 높은 사업비로 인한 재정 부담(25.6%)에 대한 우려도 함께 확인됨.

## 4.2.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농어촌 주민의 80.1%는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

그림 13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2025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민족도 조사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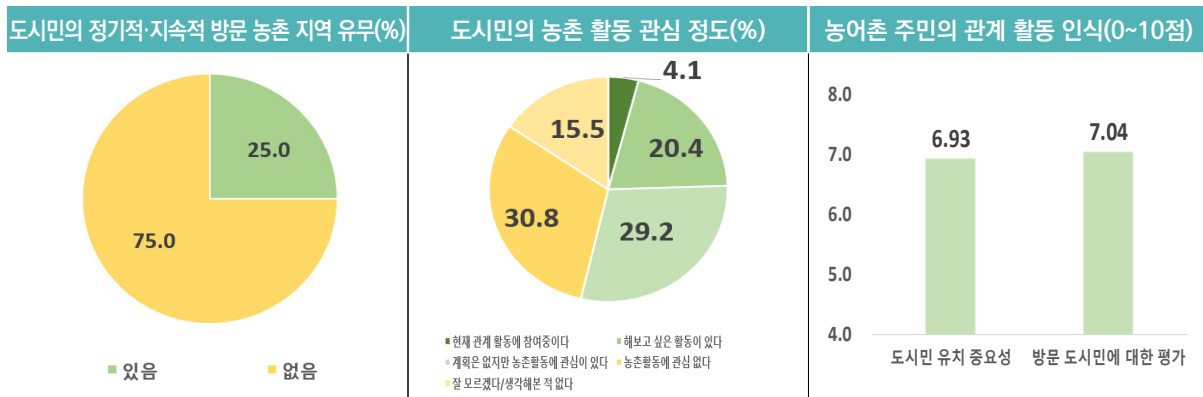
- 농어촌 주민의 67.3%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어느 정도’ 또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0%로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으나, 그 가운데 80%는 동 사업의 필요성(80.1%)과 수용 의향(83.3%)에 공감하였음.
- 해당 집단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로 지역 소득 안정과 고령층 생활 안정을 주요하게 꼽았음.
  - ‘어느 정도’ 또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주민들은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로 지역의 소득 불안정 해소(24.4%)와 고령층 안정적 생활 지원(22.9%)을 꼽아, 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가 확인됨. 동시에 청년층 정착 유도(18.9%), 도시와의 소득 격차 완화(16.0%), 인구 감소 방지(13.8%) 등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에 대한 기대도 나타남. 반면 불평등·형평성 문제(28.4%)와 재정 부담(25.2%)에 대한 우려도 함께 관찰되었음.

### 4.3. 농촌 관계 활동 및 관계인구에 대한 인식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모두 ‘농촌 관계 활동’(농촌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속 교류)에 우호적

그림 14 농촌 관계 활동 현황 및 인식

단위: 항목별 상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2025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를 재구성.

- 도시민 중 절반 이상(53.7%)이 농촌 관계 활동에 관심이 있고, 농촌 지역을 반복 혹은 지속하여 방문 중인 비율은 25%에 달함.
  - 농촌 관계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집단(‘농촌 지역에 관계 활동 경험이 있다’, ‘농촌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없지만 관심을 갖고 있다’)의 비율은 53.7%로, 현재 특정 농촌 지역을 정기·지속적으로 방문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약 2배 수준임. 이는 적절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향후 더 많은 도시민이 농촌을 찾을 가능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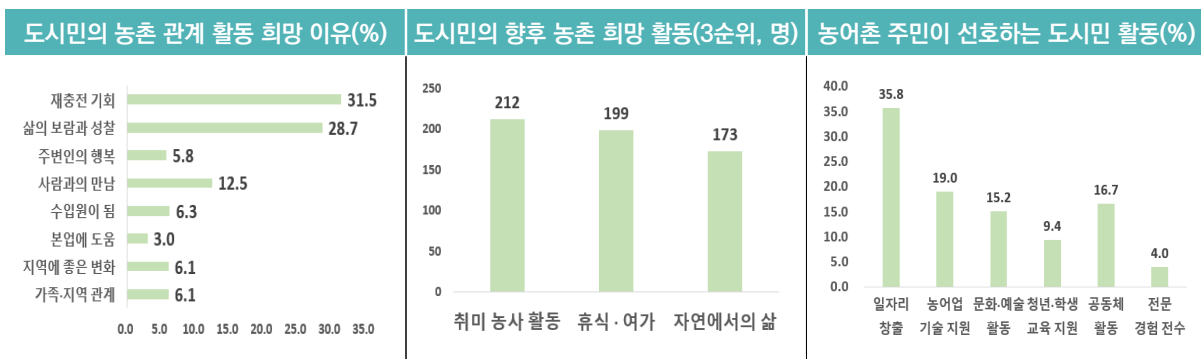
- 농어촌 주민 역시 지역 측면에서 도시민의 농촌 관계 활동 중요성에 공감함.
  - 농어촌 주민은 도시민의 관계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구체적으로, 농촌 소멸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역에 관계 활동을 하는 도시민을 유치하는 일의 중요성을 6.9점(10점 만점)으로, 관계 활동을 위해 지역을 방문하는 도시민에 대해 7.0점(10점 만점)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함.

**도시민이 선호하는 관계 활동과 농어촌 주민이 기대하는 관계 활동 사이에 차이가 존재**

- 도시민은 농촌에서 휴가·여가 및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하지만, 농어촌 주민은 도시민의 관계 활동으로 일자리·기술 지원 등 생산적 기여를 기대함.
  - 도시민의 농촌 관계 활동 참여 동기는 삶의 활력 재충전(31.5%), 삶의 보람과 자아성찰(28.7%) 등이 주요하였음. 향후 희망하는 관계 활동으로는 취미로서의 농사 활동과 휴식·여가를 위한 방문(단순 관광),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건강하게 살기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도시민이 농촌의 관계 활동을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의 여유 있고 건강한 여가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와 비교해, 농어촌 주민은 관계 활동이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구체적으로, 농어촌 주민은 우리 지역을 찾는 도시민의 관계 활동으로 지역 내 창업 및 일자리 창출(35.8%), 농업·농촌 관련 전문 기술 지원(19.0%),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 및 네트워크 강화(16.7%),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 분위기 활성화(15.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15** 농촌 관계 활동 동기 및 선호

단위: 항목별 상이



주: '도시민의 향후 농촌 희망 활동'은 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이 많은 상위 3개 항목만 제시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2025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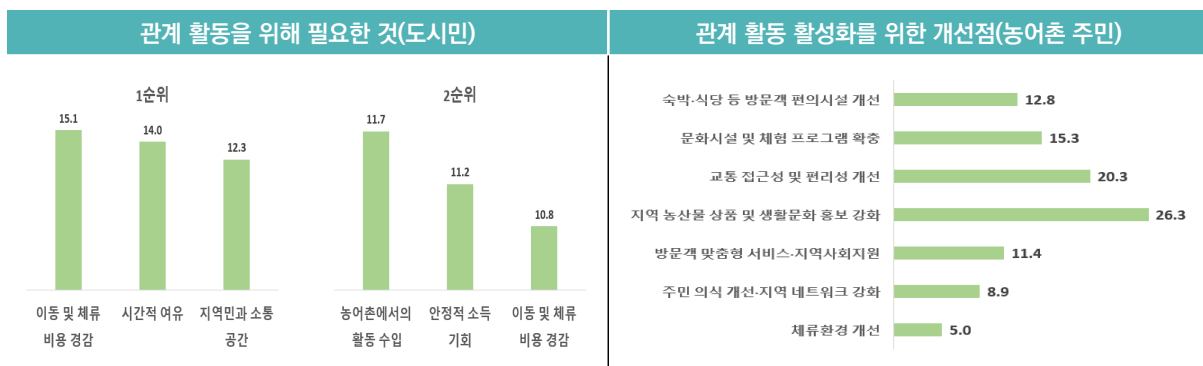
**관계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은 개인적인 여건의 개선, 농어촌 주민은 지역 환경 정비를 뽑음**

- 도시민은 관계 활동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비용 부담 경감과 시간적 여유를 주요하게 꼽았고, 농어촌 주민은 관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산물·상품 및 생활문화 홍보 강화, 교통 접근성 및 편리성 개선 등을 강조하였음.

- 도시민은 농촌 관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1순위로 이동 및 체류에 드는 비용 부담 경감(15.1%)과 시간적 여유(14.0%) 등을, 2순위로 농촌 지역에서의 활동 수입(11.7%)과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활동 기회(11.2%) 등을 꼽았음. 이는 관계 활동 촉진을 위해 도시민의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관계 활동이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회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 한편, 농어촌 주민은 도시민을 유인할 지역의 매력도 증진과 방문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구체적으로 지역 농산물·상품 및 문화 홍보(26.3%), 교통 접근성 개선(20.3%), 문화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6 농촌 관계 활동을 위한 개선 사항

단위: %



주: '관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도시민)' 문항은 1순위와 2순위로 응답을 조사하였으며, 상위 3개 항목만 제시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2025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를 재구성.

#### 4.4. 시사점

-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경기 침체 문제를 겪고 있어, 농어촌 활력 제고 정책으로 농촌 재생 에너지,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관계활동 활성화 등이 논의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현 정부의 농촌 재생에너지와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다만 사업 내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단에서는 사업의 필요도와 수용 의향이 80%에 달하였음. 이는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주민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지역의 소득 불안정 해소를 주로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남. 다만 두 사업 모두 재정 부담에 대한 염려도 함께 나타났음. 따라서 신중한 설계를 바탕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우려를 완화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도시민 중 절반 이상이 농촌 관계 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답하였음. 그러나 실제로 농촌 지역과 정기적·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비율은 이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관계 인구는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농어촌 주민 역시 도시민의 관계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관계 인구 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된 것으로 보임.
- 관계 활동에 대한 도농 주민 간 기대 및 촉진 조건에서 인식 차이가 나타남. 도시민은 관계 활동을 통해 여가·휴식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일부는 관계 활동이 소득 창출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수요도 확인되었음. 반면, 농촌 주민은 도시민의 관계 활동이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 공동체, 문화·예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관광과 지역 일자리를 결합한 ‘농촌 워킹홀리데이’나 지역에 필요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보람을 찾는 ‘농촌 재능나눔’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관계 활동 참여에 필요한 요소로 도시민은 시간·비용 부담 완화를, 농촌 주민은 지역 매력도 제고와 방문 편의 개선을 주요 요인으로 꼽은 만큼, ‘농촌 반값 여행’이나 ‘반나절 농촌 체험’, 주요 관광지 및 체험지 교통 연계(셔틀·순환버스), 공유형 체류 인프라 조성 등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농 간 접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2025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농림축산식품부.  
\_\_\_\_\_(각 연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